

‘안동향손사적통록’ 분석 1

한류문화苑 (대표 권오철 부정공파35世)

안동 이족(吏族,지방관리) 66인의 이야기
이 서적은 조선말 향리들이 자신들의 존재감, 즉 “지방 실무 엘리트의 신분 상승 프로젝트”를 위한 노력의 기록이다. 안동 권씨 35명, 안동 김씨30명이 고 강씨가 1명 있다.

이 66명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 안동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족(향리)’ 세력이, 자신들의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펼친 집단적이고도 장기적인 노력의 서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세 가지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1막: 국가의 위기에서 충성을 증명하다.
(16세기 말 ~ 17세기 중반)
주요 행적: 군공(軍功), 녹훈(錄勳), 순절(殉節), 절의(節義)

내용: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안동의 이족들은 단순한 지방 관리가 아닌 ‘국가의 방패’로서 역할을했다. 권산호, 김원오 같은 인물은 전장에서 무공을 세워 국가로부터 훈격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녹훈)을 얻었고, 권용휴, 권효중, 김취영 같은 인물은 병자호란 때 목숨을 바쳐 충절(순절)을 증명했다. 이들은 위기 속에서 ‘신분’을 넘어 ‘조선을 지키는 의로운 신하’임을 입증하며,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초석을 마련했다.

2막: 유교적 가치의 수호자로 거듭나다.
(17세기 후반 ~ 18세기)

주요 행적: 학행(學行), 효행(孝行), 문예(文藝), 저서 간행

내용: 전란이 끝나고 안정된 사회가 되자, 안동 이족들은 전략을 바꾼다. 무력이 아닌 유교적 가치 실천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정당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이제 ‘힘쓰는 관리’에서 ‘학문과 덕행을 갖춘 선비’로의 변모이다.

권순경, 권운만, 김우준 등 수많은 인물이 뛰어난 학문과 덕행(학행)으로 명성을 얻었고, 개인의 문집(『와와집』, 『계원집』, 『수서집』등)을 간행하며 학문적 역할을 과시했다.

권중영, 권명달, 김성정 등은 효행으로 정문을 받아 마을의 도덕적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그들은 행정 실무(吏務)에 능통한 ‘능력 있는 관리’이자, 유교적 교양을 갖춘 ‘교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

3막: 안동 이족의 위대함을 역사에 새기다
(편찬의 의미)

주요 행적: 『안동향손사적통록』 편찬 그 자체
스토리: 66명의 행적을 집대성하여 『안동향손사적통록』을 편찬한 행위는 이 모든 노력의 정점이다. 이 책은 단순한 인물 기록이 아니며 이것은 안동 이족 집단이 스스로를 위해 쓴 ‘공식 역사서’이자 ‘선전문’이다. 그들은 이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안동 이족(권씨와 김씨)은 다른 지역 이족



과 다르다.”
“우리는 나라에 공을 세운 충신이자, 학문과 효행으로 빛난 덕망가이며, 지방 행정을 책임진 유능한 관리다.”

“따라서 우리의 지위와 명성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우리는 양반 계층에 버금가는 존재감을 가진다.”

『안동향손사적통록』에 등장하는 66명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 안동 지역의 실무 관리 집단(이족)이 국가에 대한 충성, 유교적 가치 실천, 학문적 성취를 무기로 자신들의 신분적 한계를 넘어 사회적 주체로 부상하려 했던 ‘집단지적 정체성 구축 프로젝트’의 기록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 사회가 단순한 ‘양반-상민’의 이분법적 구조가 아니라, 안동 이족과 같이 실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지위를 다지고 역사에 기억되려 했던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진 역동적인 사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편은 이 서적의 반을 차지하는 27인의 편찬자의 글을 분석하여 보면 더 흥미로울 것이다.

[표] 66인 명단

번호	성명	직역	생존연대	두드러진 행적
1	강헌 (姜 翰)	진사 (進士)	?	퇴계와 교류
2	권민익 (權敏翼)	진사 (進士)	?	
3	권산호 (權山虎)	호장 (戶長)	1574 ~ 1633	녹훈 선무 (錄勳 宣武)
4	권강성 (權慶星)	판관 (判官)	?	녹훈 선무 (錄勳 宣武)
5	권완 (權 完)	호장 (戶長)	1586 ~ 1621	절의 (節義)
6	권극수 (權克秀)	출신 봉사 (出身 奉事)	1673 ~ 1744	녹훈 진무 (錄勳 振武), 순절 정려 (殉節 旌閭)
7	권용휴 (權用休)	호장 중주부 (戶長 兼 主簿)	? ~ 1637	순절 정려 (殉節 旌閭)
8	권중영 (權仲英)	호장 (戶長)	1632 ~ 1711	효행 정려 (孝行 旌閭)
9	권효중 (權孝重)	사인 (士人)	? ~ 1637	순절 (殉節)
10	권운성 (權運亨)	영리 사관 (營吏 司稟)	?	군공 (軍功)
11	권후중 (權後重)	호군 (僉軍)	1659 ~ 1737	절의 (節義)
12	권시량 (權時亮)	진사 (進士)	1676 ~ 1744	문예, 학행 (文藝, 學行)
13	권순경 (權舜經)	생원 (生員)	1676 ~ 1713	학행, (와와집) 간행 (學行, (無庵集) 刊行)
14	권명달 (權命達)	증 참의 (贈 參議)	1644 ~ 1704	효행, 복호 (孝行, 復戶)
15	권희영 (權喜柄)	증 참의 (贈 參議)	1673 ~ 1744	효행 (孝行)
16	권재 (權 粹)	진사 (進士)	?	
17	권두석 (權斗錫)	진사 (進士)	?	
18	권희하 (權喜學)	화원군 (花原君)	?	
19	권운만 (權運萬)	부사직 (副司直)	1672 ~ 1742	학행 (계원집) (學行 (桂園集))
20	권만형 (權萬亨)	사인 (士人)	?	학행 (學行)
21	권태식 (權台式)	증 참판 (贈 參判)	?	구무공신 (舊武功臣)
22	권시대 (權時大)	부사 중주부 (副司直 兼 主簿)	?	이무에 뛰어난 (吏務에 뛰어난)
23	권재운 (權載運)	?	?	군공 (軍功)
24	권덕형 (權德衡)	처사 (處士)	1701 ~ 1778	문예 (文藝)
25	권사규 (權時規)	처사 (處士)	?	시명 (詩名)
26	권덕관 (權德寬)	진사 (進士)	?	학행 (여택재 유고) 간행, 작계서사 배향 (學行 (鰥澤齋遺稿) 刊行, 作溪祠 配享)
27	권창식 (權昌植)	위장 동주 (衛將 同祖)	1700 ~ 1785	학행 (學行)
28	권덕래 (權德來)	동주 (同祖)	1702 ~ 1788	(동리현집) 간행, 작계서사 배향 (風雷軒集) 刊行, 作溪祠 配享)
29	권달시 (權達時)	동주 (同祖)	1724 ~ 1804	학행 (學行)
30	권봉장 (權鳳章)	증 참판 (贈 參判)	1706 ~ 1756	이무에 뛰어난 (吏務에 뛰어난)
31	권봉인 (權鳳彬)	사인 (士人)	?	청렴 (淸廉)
32	권성범 (權聖範)	사인 (士人)	1725 ~ 1785	학행 (잠계집) 간행 (學行 (潛溪集) 刊行)

번호	성명	직역	생존연대	두드러진 행적
33	권개만 (權啓萬)	사인 (士人)	1739 ~ 1802	학행 (북리고) 간행 (學行 (北里稿) 刊行)
34	권일민 (權日彬)	직인 (直人)	1745 ~ 1807	학행 (學行)
35	권명성 (權命聲)	호장 (戶長)	?	학행 (學行)
36	권영순 (權永淳)	?	?	효행 정려 (孝行 旌閭)
37	김동락 (金東洛)	영리 (營吏)	1767 ~ 1849	서사 (書寫)
38	김형 (金 瑍)	영리 (營吏)	?	서사 (書寫)
39	김준수 (金存水)	영리 (營吏)	1771 ~ 1834	서사 (書寫)
40	김경성 (金敬成)	영리 (營吏)	?	서사 (書寫)
41	김취성 (金就成)	호장 (戶長)	1767 ~ 1835	효행 정려 (孝行 旌閭)
42	김규 (金 瑬)	호장 (戶長)	?	문장에 뛰어난 (文章에 뛰어난)
43	김취영 (金就英)	영리 (營吏)	1569 ~ 1637	서예, 면향 (書畵, 免鄕)
44	김조 (金 韶)	생원 훈도 (生員 訓導)	1572 ~ 1639	
45	김지엽 (金之葉)	?	1601 ~ ?	
46	김석배 (金石蓐)	?	?	
47	김정 (金 鎰)	?	1613 ~ 1685	
48	김현복 (金獻復)	호장 (戶長)	1648 ~ 1694	
49	김득성 (金得聲)	출신 (出身)	? ~ 1629	군공, 영세면향 (軍功, 永世免鄕)
50	김취충 (金就忠)	출신 봉사 (出身 奉事)	1581 ~ 1644	절의 (節義)
51	김원오 (金源鳴)	출신 (出身)	? ~ 1650	녹훈 정국 (錄勳 淸國)
52	김여우 (金麗鳴)	호장 (戶長)	? ~ 1637	군공 (軍功)
53	김성정 (金聖淸)	영리 (營吏)	1636 ~ 1713	효행 정려 (孝行 旌閭)
54	김시준 (金時俊)	진사 (進士)	1658 ~ 1733	절의 (節義)
55	김우준 (金宇尊)	생원 (生員)	1672 ~ 1745	학행 (수서집) 간행 (學行 (水西集) 刊行)
56	김시욱 (金是錫)	진사 (進士)	1636 ~ 1696	학행 (學行)
57	김지형 (金志衡)	영리 진사 (營吏 進士)	1660 ~ 1743	이무에 뛰어난 (吏務에 뛰어난)
58	김운조 (金運祚)	호장 (戶長)	1684 ~ 1731	행검 (行檢)
59	김기조 (金起祚)	영리 (營吏)	1696 ~ 1772	행검 (行檢)
60	김우형 (金有亨)	영리 (營吏)	1689 ~ 1749	녹훈 양무 (錄勳 楊武)
61	김현룡 (金漢龍)	첨주 (僉樞)	1697 ~ 1792	녹훈 양무 (錄勳 楊武)
62	김태륜 (金泰倫)	영리 동주 (營吏 同祖)	1700 ~ 1790	학행 (學行)
63	김관성 (金觀聖)	영리 증 참의 (營吏 贈 參議)	1712 ~ 1751	서예 (書畵)
64	김사묵 (金思默)	진사 (進士)	1730 ~ 1835	기량이 큼, 효행 (器量이 淸, 孝行)
65	김신택 (金信澤)	호장 (戶長)	1745 ~ 1802	효행, 복호 (孝行, 復戶)
66	김지완 (金之完)	호장 (戶長)	1743 ~ 1801	효행, 복호 (孝行, 復戶)

안동종친회, 지회장협의회·부녀봉사대 등 부산 가을 나들이

안동종친회(회장 권철환) 주최 안동권씨 24개 읍면동 지회장협의회, 총무협의회, 부녀회, 부녀봉사대 등 남녀 회원 220여 명이 부산으로 가을 나들이를 하였다.

첫 눈이 내린다는 22일 소설(小雪). 파란 가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온화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에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안동권씨 안동의 지회장협의회, 총무협의회, 부녀회, 부녀봉사대의 화합과 단합을 위하여 안동종친회에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11월 22일 오전 7시 30분 안동시체육관 옆 예미정 뷔페 앞에서 관광버스 6대에 각 버스마다 31~35명 썩 나눠 타고 인솔자도 1~3명 썩 배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신경을 쏟아부었다. 버스마다 술, 음료수, 과일, 떡, 과자 등 먹을거리를 잔뜩 배분하여 실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후보자들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얼굴을 자주 알리고 있다. 이날도 권기창 안동시장 부부, 권광택 경북도의원 부부, 김의승, 김명호, 권백신, 권기윤, 여주희 등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출마할 안동시장 및 안동시의원들이 인사차 버스에 올라와서 인사말을 하고 내려간다.

아침 8시가 되자 관광버스 6대가 부산을 향하여 출발했다. 권철환 회장은 1호 차를 비롯하여 고속도로로 휴게소에 쉴 때마다 버스에 올라가서 인사말을 하곤 했다. 1호 차를 탄 권 회장은 인사말에서 “안동권씨전국체육대회를 대비, 부녀봉사대를 결성, 잘 활용하고 나서 그동안 모임을 갖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 모임을 가져 미안하다”며 “감사한 마음에서 부산 가을 나들이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안동종친회는 작년 3월 25일 안동시 남산면 기느리길 ‘농촌에’식당에서 안동권씨 팔들과 머느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권씨부녀봉사대를 결성하였었다.

관광버스가 경북 군위, 청도 휴게소에 잠시 머무르고 부산을 향해 달리는 도중 회원 33명이 탄 1호 차에는 권순택 지회장협의회 총무가 사회를 보면서 회원들이 간단한 자신의 소개와 돌아가면서 노래를 불렀다. 권기욱 지회장이 ‘여자 여자 여자’를 제일 먼저 부르고 권순택씨가 ‘이왕에’, 권기덕씨가 ‘조약돌 사랑’, 다음 분이 ‘흠에 살리라’, ‘누이’ 등 수십 곡을 부르자 4시간 만에 부산 자갈치시장 부근에 도착하였다. 회원들은 자갈치 신동아시장 3층에 자리



자갈치시장 회센터에서 즐거운 점심식사

잡고 있는 대구회센터로 이동하였으며 이 식당은 200명을 거뜬히 수용할 수 있는 대형식당이다. 점심은 싱싱한 회와 매운탕을 곁들여 식사를 하였으며 식사 도중 권순택 지회장협의회 총무와 권동연 총무협의회 회장이 건배 제의를 한 후 잠시 후 식사가 끝났다. 지난 5월 28일 안동종친회 원로회원들이 부산 봄철 나들이 왔을 때 부산타워, 크루즈를 타고 해양관광, 재한(在韓)유원기념관을 관광하여 이번 가을 나들이 때는 단체여행을 하지 않고 대신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회원들은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건여물시장 등 여러 곳을 마음대로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았다. 나는 회원 6명과 함께 국제시장을 둘러보았다.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았으며 대낮인데도 포장마차가 성업 중이었다. 길바닥에는 해마다 부산 영화제에 참석했던 남녀 여배우와 감독들이 손바닥과 사인을 한 동판이 깔려 있어서 마치 외국에 온 느낌을 받았다. 국제시장을 둘러본 회원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다.

약속 시간인 오후 3시가 되자 회원들은 관광 버스를 타고 안동을 향하였다. 버스 안에는 또 신나는 노래로 시간을 보냈다. ‘천년지기’, ‘누가 물어’, ‘안동역에서’, ‘미운 사내’, ‘보릿고개’, ‘살아있는 가로수’ 등등이다. 오후 7시쯤 안동에 도착, 예미정 뷔페에서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권철환 회장, 권기창 안동시장, 권광택 경북도 의원이 “아무 탈 없이 부산에서 잘 지내다 돌아오니 고맙다”며 인사했다. 특히 권철환 회장은 “앞으로 더 좋은 지역을 선택해서 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각 지회장 회장, 총무협의회 회장도 돌아가면서 인사말을 했다.

이 자리에서 권이규 나눔과 치유어르신주간 보호센터 센터장은 참석자 전원에게 ‘오로라 라인머그 유리잔’ 4개가 들어있는 유리잔 세트를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영권 보도부장

공항으로 가는 가장 편안한 길!

행복한 여행의 시작과 끝을 공항리무진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컨템포디보



인천공항 전경



주식회사 공항리무진

문의 (☎) 2664-9898, (야간)2665-1094
http://www.airportlimousine.co.kr